김진무 · 조현봉 · 최원섭 전법학술상 수상

불광연구원, 선정 결과 발표… 12월 11일 시상식


김진무


조현봉


최원섭

전법학 연구에 기여한 학자들에게 수여하는 전법학술상 올해 수상자로 김진무(원광대 강사) · 조현봉(동국대 강사) · 최원섭(금강대 HK연구교수)이 선정됐다. 대상인 바라밀상은 수상자 없음으로 결정됐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심사회의를 열고 올해 전법학술상 수상자를 이 같이 결정했다. 김진무 박사는 논문 '청대(淸代) 팽제청(彭際淸)의 불교부흥과 거사불교(居士佛敎)', 조현봉 박사는 '협조적 전법교화 체제 활성화를 위한 재가 포교사 리더십에 관한 연구', 최원섭 교수는 '방송 매개 전법을 위한 불교 콘텐츠 구성 방향'으로 전법학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박사의 논문은 재가자 중심의 거사불교가 중국 불교에 중대한 사상사적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현재에도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문으로 평가됐으며, 조 박사의 논문도 재가 포교사 능력을 향상시켜 종단의 포교정책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교수가 논문을 통해 제안한 불교 매뉴얼 마련과 불교콘텐츠 포털센터 구축 방안은 그간 방송 제작자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요구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잠실 불광사 보광당에서 진행하며, 시상식에 이어 수상논문에 대한 발표회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각 300만원씩이 수여되며, 불광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전법학연구〉 제11호에 논문이 게재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중표 교수,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특강

12월 19~22일 마포 다보빌딩서 총 8강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 부설 대원불교문화대학은 겨울방학을 맞아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 초청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강좌를 개최한다.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오후 7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다보원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매일 1 · 2교시씩 총 8강으로 진행된다.

진흥원은 "한국불교의 의식마다 빠지지 않고 독송되는 '반야심경'은 가장 짧은 불교경전이면서 반야경전의 중심사상을 270자로 함축시켜 서술해 놓았다"며 "대승불교의 정수를 모아 놓은 대표적인 경전인 '반야심경'의 니까야를 통한 재해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강료는 5만원.

(02)707-1072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학硏, '불교사상과 미술' 동계 워크숍

12월 26~27일 산청 대원사서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12월 26~27일 산청 대원사서 '불교사상과 미술'을 주제로 동계 워크숍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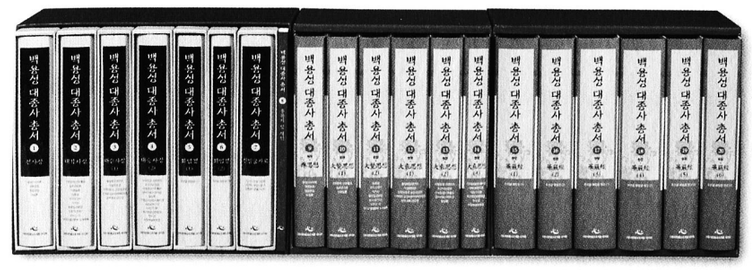
이날 워크숍에서는 홍대한 숙명여대 교수의 '고려 건국과 경상도 지역 석탑의 새로운 변화', 주경미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의 '불사리장엄구의 양가성 · 종교성과 세속성의 상치와 융합',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의 '업 · 윤회사상과 감로탱화에 대한 연구' 등이 발표된다.

학술발표 이후에는 '불교사상과 미술'에 대한 종합 토론이 이뤄진다. 워크숍 이튿날에는 진주 청곡사, 고성 옥천사 답사도 진행된다. 참가자는 40명 선착순 마감이며, 이메일과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010)4313-2122

신성민 기자

백용성 스님 저서 망라한 '총서' 나왔다

대각회 · 전자불전硏,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조계종 대각회와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추진 · 발간한 〈백용성 대종사 총서〉 전집. 2013년부터 4년여의 시간 끝에 세상에 나왔다.

3.1 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이자 한국불교 근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선지식인 백용성 스님(1864~1940)의 저서와 관련 자료를 망라한 총서가 발간됐다.

조계종 대각회(이사장 혜총)는 오는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백용성 대종사 총서〉 출간을 기념하는 고불식을 봉행한다. 근대 고승에 대한 전면적인 총서 발간은 유례가 없는 일로, 이번 총서 발간으로 용성 스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백용성 스님에 대한 전집은 1991년 대각회에서 발간된 바 있었으나, 대부분 자료를 영인(影印)하는 데 그치고 일부 오류도 있어 정확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대각회가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와 함께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사업에 착수한 것은 2013년 2월부터다. 4년여의 연구기간 동안 용성 스님 자료 조사와 촬영 등이 진행됐으며, 스님의 기고문 · 서간문 등이 새로 발굴되기도 했다.

또한 이번에 대각회와 동국대가 새로 발간하는 〈백용성 대종사 총서〉는 스님의 저서와 신발굴자료에 대한 현대어 해석도 포함돼 그 가치를 높였다.

총 20권에 달하는 총서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1그룹 8권은 스님의 저서와 발굴 자료를 현대에 맞게 해석한 것이며, 2그룹 12권은 이를 영인한 것들이다.

또한 용성 스님의 저서를 부문별로 분류해 묶은 것도 특징이다. 1그룹의 1권은 '선사상'을 주제로 〈용성선사 어록〉, 〈귀원정종〉, 〈청공원일〉, 〈수심론〉이 포함됐다. 2권은 '대각사상'을 주제로 〈선문촬요〉, 〈삼조만유론〉, 〈각해일륜〉, 〈임종결〉, 〈대각교 의식〉, 〈석가사〉, 〈불문입교문답〉, 〈오도의 진리〉, 〈오도는 각〉, 〈대각교중앙본부 도서목록〉이 묶였다.

오는 12월 13일 출간 고불식
저서 정리 · 新발굴 자료 포함
현대어로 해석, 20책 묶어내
2013년 시작… 4년여 진행
기초 연구 자료로 가치 높아

3, 4권은 '대승사상 Ⅰ · Ⅱ'로 〈불설법망경연의〉, 〈각설 범망경〉, 〈신역 대장경 금강경 강의〉, 〈신역 대장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 〈상역과해 금강경〉, 〈수능엄경 선한연의〉, 〈조선어 능엄경〉, 〈대승기신론〉, 〈천수경〉, 〈지장보살본원경〉 등이 담겼다. 5, 6권은 〈조선글 화엄경〉이, 7권은 신발굴자료, 8권은 총목차 및 색인으로 이뤄진다.

특히 7권 신발굴자료에는 스님의 기고문, 신문, 잡지, 서간문, 비문, 단행본, 유물, 사진 등 발굴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8권 총목차 및 색인에는 총서의 전체 목차와 더불어 새롭게 정리된 백용성 스님의 연보와 관련 연구 목록도 포함됐다.

이번 총서 발간에 대해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은 "용성 스님은 수행 · 항일민족운동 · 역경 · 선농불교 · 포교 · 불교정화 등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셨다"면서 "이번 총서는 용성 스님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종합한 것으로 한국 현대출판사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동국대 총장이자 대각사상연구원장인 보광 스님도 "이번 총서 발간은 용성 스님의 연구가 진일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근현대 한국불교 고승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축적의 모델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서는 DB화를 통해 모든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동국대는 내년 8월까지 DB화를 완료하고 아카이브를 통해 디지털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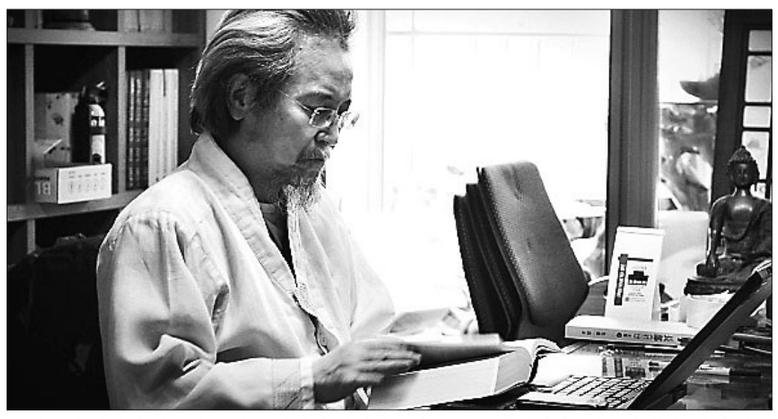
총서 DB화에 대해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DB팀장은 "책으로 발간한 총서를 인터넷을 통해 불자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DB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용성 스님의 사상과 유훈을 일반 대중들이 알고 대중화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부처님 제자들의 오도송을 만나보세요"

전재성 빠알리성전協 회장 〈테라가타-장로게경〉 완역

장로들 오도송 1291수 담겨
〈테라가타〉완역, 세계 최초
제자들의 생생한 法悅 느껴져
사이비 수행자 비판도 '눈길'


초기불전 번역에 열중하고 있는 전재성 회장의 모습. 그는 〈테라가타-장로게경〉을 세계 최초로 완역했다.

오도송(悟道頌)은 일반적으로 선승이 자신의 깨달음을 읊은 선시(禪詩)를 의미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도 자신이 깨달은 바를 시로 표현했다. 이를 모아놓은 것이 〈테라가타〉이다.

〈테라가타〉는 남방 상좌부 경전으로 우리에게는 〈장로게경(長老偈經)〉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안에는 초기불교시대 불제자 260명의 출가 동기부터 수행과정, 깨달음이 게송으로 담겨있다. 그 분량도 1291수로 방대하다. 이 방대한 분량의 오도송이 세계 최초로 완역됐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은 최근 〈테라가타- 장로게경〉 완역본을 출간했다. 〈테라가타〉는 1889년 처음으로 독일의 노이만에 의해 간략한 주석과 더불어 번역됐고, 1913년 영국 리스 데이비즈 부인에 의해 간략한 현생 인연담과 함께 발간됐다. 이후 영국과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나왔지만, 완역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테라가타〉는 부처님 제자 260명의 게송인 만큼 출신성분부터 연령, 수행과정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마하깟사빠(마하가섭)처럼 바라문이 118명, 왕족이 60명이며, 지주가 7명, 상층계급은 54명이다. 장인은 9명, 배우 1명, 천민 10명, 서자 3명, 재가신자의 아들 3명이다. 바라문과 왕족이 가장 많지만, 당시 출가가 어려웠던 하층민들도 수행자가 됐음을 알 수 있다.

출가 연령도 흥미롭다. 대부분은 성년이 된 후에 출가했으나 쑤마나 장로의 경우에는 7세에 출가했으며, 담마싸빠삐따 장로는 120세 출가한 기록이 있다.

사이비 수행자에 대한 장로들의 비판은 현대 승가와 재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로 빠라싸리야는 수행자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사기꾼 · 협잡꾼 · 위증자 등으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머리를 깎고 가사를 걸쳤으나 이득과 명예에 빠져 공경을 받는 것만을 원한다" 등의 게송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전 회장은 "니까야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부처님 제자들의 위대함을 〈테라가타〉에서는 만날 수 있다"면서 "이번 완역본을 통해 부처님 제자들의 면모를 대중들이 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